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정보

Creating a
Corporate IR
Together

노다지 MAGAZINE

VOL. 03

발행일: 24년 12월 28일



에너지 & 그리드

트럼프 2.0 급변하는 전력체계?



MARKET NEWS



트럼프의 반전... 신재생에너지 오히려 더 성장했다

유재현 기자 | 24.12.23 | 와이스트리트 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 가능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 우려가 커지는 것. 다만,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오히려 성장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특히 풍력발전은 연평균 9.8% 성장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 화석연료 분야로 정책적인 호재가 집중되겠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또한 동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MARKET ISSUE

트럼프, 美 LNG '신규 수출 제한 조치' 해제하기로 24.12.23 글로벌이코노믹

- 바이든 정부의 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생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를 줄이며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중임
- 트럼프는 EU에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를 요구, 불응 시 관세 인상을 경고함
-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음

트럼프 에너지 정책 키워드는 '다변화'... 24.12.22 비즈니스포스트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 할 가능성이 큼
- 신재생에너지 세제혜택은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유지될 전망
- 전력원 다변화와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지원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AI는 트럼프 리스크 없다" 호황 누리는 'K-전력기기' 2024.12.16 데일리안

- 국내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주잔고 증가와 실적 호조를 보이며 성장 중임
- 정권 교체 이후에도 노후 전력망 교체 및 AI 투자 지속될 전망
- 타 산업군에서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도 피해갈 것으로 전망
- 이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증설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씨에스윈드, 미국 AMPC 없이도 흑자 달성

주요 내용

- 상반기 실적 변동 있었으나 3분기 안정화되었음
- 연간 단위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함
- AMPC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있음
- 다만 보조금 없이도 흑자 달성하기에 유리함
- 미국 풍력은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26년 급격히 성장 기대
- 유럽 또한 26년 이후 성장을 기대함

#미국 시장

- 26년부터 12기가부터 시작해서 15기가 등으로 성장할 예정
- 트럼프 이슈로 26년으로 이연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10기가 이상 찍는 순간 북미는 쏠티지 발생하기에 최근 북미 수주를 많이 탄 고객사와 단가를 올리고 있음
- 사업 환경이 트럼프 당선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북미 시장 캐파 확대와 생산 다각화도 끝내놨음
- 향후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 잘할 것으로 기대함

Q. 트럼프 이후 전망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 EU는 성장하기엔 제반 구축이 미흡함
- 해상 풍력보단 오프쇼어가 메이저임
- 유럽 내 터빈 사이즈가 10~11메가인데 내후년 14메가로 대응 예정임
- 미국 육상은 취소되기 어려움
- 이미 계약 공시가 나왔음
- 우리 온쇼어는 불확실성이 낮음
- 다만 해상풍력은 편딩된 프로젝트는 지연될 수 있음
-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편딩된 프로젝트 미팅을 빨리해주고 있음
- 해상풍력 설비가 미국 내 없다보니 AMPC 리스크는 전혀 없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씨에스베어링, 내년 30% 성장 기대

주요 내용

- 풍력 설치량에 1년간량 선행하며 2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고객사 다변화 중이며 올해 3분기부터 미국향 수주 증가 중임
- 가이드언스는 내년 매출 30% 성장 기대함

#트럼프 이슈

- 트럼프 집권기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풍력 발전이 설치됨
- 정권 정책 때문이 아니라 PTC법안의 일몰에 맞춰 투자자들이 몰림
-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Q. 올해 회사 예상보다 업황이 안좋았는데 내년 전망은?

- 작년 GE에게 받은 물량이 그리드 커넥션 문제로 지연됐음
- 그래서 작년 2분기까지 실적이 괜찮다가 3,4분기 공백이 발생함
- 발전단지 세울 때 밑에 케이블 깔고 변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쪽으로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드 커넥션 문제가 생겼음
-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체킹이 되지는 않았으나 완화될 것으로 기대

Q. 해상풍력 매출은 언제부터 발생할지?

- 지금도 지멘스 8MW 해상 제품 매출 발생중임
- 다만 비중이 적고 26년은 되어야 본격 개화될 것으로 기대함

Q. 가이드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 내년 30% 성장 기대하고 내후년에는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고객사 관련 쿼 통과 된것도 있고 추가로 통과될 것들도 남아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LS일렉트릭, 미국 배전시장에서 M/S증가가 목표

주요 내용

- 4Q 결산 진행 중으로 QoQ, MoM으로 좋은 상황
- 미국 자회사는 업황이 좋아서 업사이드 존재함
- 한국전력이 발주한 KAPES항 HVDC 변화설비 5600억 수주 달성
- 초고압 증설 진행중이며 부산 7000억 규모는 25년 10월 완공 계획임

Q. 미국 상황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영향은?

- 배전반은 슬로우함
- 국내 대형 기업들이 미국 투자 딜레이되고 삼성은 국내외 팍 건설 중단
- 25년 1H까지는 슬로우할 전망
- 트럼프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을 봐야겠지만 공약 기준으로 IRA축소는 고민이 있음
- 미국 변압기, 배전기기 시장을 서두르고 있어서 그부분에서 보완예정

Q. 배전기기 중장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 전략은?

- 미국 진출 10년 되었음
- 22년 IRA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용역 업체 업무를 많이 함
- 당시에 제품 경쟁력이 크게 차이 없고 A/S와 가격 측면에서 앞섰음
- 24년 초부터는 딜러들이 찾아와서 배전기기 유통하고 싶다는 요청
- 100개 이상의 리스트를 받아서 20개 정도로 추려서 계약을 진행중임
- 미국은 3개의 그리드로 나누고 있음
- 그리드 내에서 기본 6개 이상씩 선정해서 계약 진행 중임
- 작은 규모 업체들은 완료해서 납품하고 있음
- 큰 업체들은 커미션 등 막바지 작업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산일전기, 신재생과 송배전 시장 확장

주요 내용

- 21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2~23년 신재생 매출이 2배 성장
- 수출 비중이 90%로 선진국 위주로 판매중
- 특히 송배전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 생산 캐파는 최종 1조원 매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Q. 미국 관세 영향이 있을지?

- 만약 10% 관세를 받는다면 가격은 올릴 수 있음
- 현재 그렇게 할 생각은 없음
- 만약 올리면 고객사와 반씩 부담하려고 고려중임
- 한번 사가면 계속 주문을 롤링해서 주시고 거래 관계도 오래됐음
- 해외 수출 키포인트는 품질, 납기 준수, AS 등임
- 가격은 3순위로 보고 품질 자체를 더 중요시하는 부분

Q. 향후 2~3년은 미국 수주가 클 것으로 보시는지?

- 당분간 미국이 제일 클 것으로 보임

Q. 내수 상황은 어떤지?

- 연 350억 매출하고 있음
- 공공 영역은 수익성이 좋고 민간은 CR우려가 있음
- 지금은 민간은 적게 하고 있음
- 국내 공공은 흑자이고 민간 합하면 BEP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됨

Q. 타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은?

- 중동은 과거 석유 가격 올랐을 때 쿠웨이트 석유 공사 들어간 적 있음
- 인도 등도 가능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일진전기, 미국 정책 이슈 없이 호황 지속

주요 내용

- 미주 고압 변압기 수요 매우 좋은 상황
- 올해 증설 완료해서 25년 하반기부터 실적 반영 시작
-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시장에 있음

Q. 트럼프 정책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미주 수요는 좋은지?

- 업황에 큰 차이 없음

Q. 2년 치 수주는 다 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 마진은 올려서 받는지?

- 일단은 수주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임
- 저희가 물가 인상 부분 고려해서 수주받고 있음
-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 이런 부분 반영해서 수주하려 노력중
- 경쟁사들 마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에 유리함

Q. 올해 증설했는데 풀캐파시 어느 정도의 매출 업이 기대되는지?

- 뉴스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약 4000억 정도로 보고있음
- 매출 발생은 25년 하반기 정도부터 발생할 것 같음
- 조금씩 늘어나다가 본격적인 매출은 그정도 타임라인일듯

Q. 삼성전자 용인 투자관련 기사가 나왔음. 우리에게 수혜가 있을지?

- 정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음
- 국내 초고압선 같은 경우 LS, 대한전선, 일진전기 3개정도밖에 없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LS에코에너지,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주요 내용

- 3분기 매출은 작년부터 개선되고 있음
- 고마진 제품 믹스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중
- 4분기 매출도 초고압 케이블 수주 등이 잘되고 있음
- 신사업 준비를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은 28년 초도 물량 기대

Q. 해저 케이블 타임라인은?

- 정부 승인이 나게 되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 물량은 3~5년치 확보하고 사업 진행할 예정임
- 수주 물량만 확보되면 바로 의사결정 통해 사업 추진할 것
- 2~3년 공장 설립과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서 해저 케이블 양산할 것으로 판단함

Q. 해저 케이블 대응하는 이유는?

- LS전선은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고 4공장까지 완료한 상황임
- 늘어나는 수요 대응하기 위해 현재도 풀케파이기 때문에 5공장 투자 결정
- 미국 투자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음
- 전선은 미국과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 추진 중임
- 유럽과 베트남까지 하기엔 무리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전선과 같이 진행할 계획임

Q. 추후 신사업 매출 비중은?

- 현재는 베트남 내수 비중이 대부분이나 추후 신사업 진행하게 되면 신사업 성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비에이치아이, 내년에도 수주 1조원 이상 예상

주요 내용

- 사업부문은 복합화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EPC 영위
- 복합화력발전의 HRSG가 메인 제품이며, 원전은 보조기기 제품 판매
- 올해 수주 1.4조원 예상하며 내년 수주도 HRSG에서 일어날 예정

#HRSG 업황

- 기저발전이 원자력, 석탄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 바뀌어 가는 중임
- 천연가스 수입국에서는 발전 단가가 높음
- 하지만 중동이나 미국 등은 발전단가가 원전과 비슷함
- 신재생에너지 가기전까지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브릿지가 될 것

Q.셀러스 마켓 까지는?

- 시장이 좋아지면 타겟 마진도 좋아질 수 있음
- 경쟁 줄어들면 마진이 좋아질 것임
- 조금 더 가봐야 알 것 같음
- 미국 천연가스 발전소 많이 짓는다는데 아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음

Q.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은?

- 2014년에 진출 했었음
- 운송비 측면에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음
- 미국 법인이 이쪽 기회가 된다면 진출도 고려하고 있음
- 돈이 되지 않으면 진출하지 않을 것임

Q. 산업 현황은?

- 유가 오르면 중동에 돈이 많아져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음
-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복합화력 발전 줄고 수주가 줄어들 우려있음
- 반대로 가격이 내려면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태광, 2008년보다 좋게 보고 있음

주요 내용

- 3Q 총당금 및 운송비 이슈, 자회사 적자로 인해 실적 부진
- LNG 업황 호조, 금리인하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개선 기대함
- 자회사 HTYC는 테슬라에 2차 발주 형태로 납품하고 있음
- 향후 1차 발주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중임

#향후 전망

-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했던 에너지 흐름에 대한 기조가 확실시됨
- 11월 묶여있던 해양 플랜트에 물량들이 풀리면서 4Q도 조금씩 증가
- 25~27년도 LNG 산업은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쪽도 좋은 분위기

Q. 트럼프 당선 이후 정체됐던 LNG프로젝트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추세?

-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수주물량이 묶여있었으나 대선 종료로 인해 풀릴 것으로 기대함
- 전통 에너지 부문이 확실시되고 셰일이나 LNG 가스전에 대한 설비가 휴스턴과 같이 PNG가 깔리는 쪽으로 프로젝트 재개될 것으로 기대

Q. 미국 늘어난다고 했는데 아시아가 빠지는 상황은 아닌지?

- 향후 아시아나 유럽도 프로젝트가 꾸준히 발생할 예정
- 19년부터 LNG 프로젝트들이 시작됐고 중동은 21~22년에 본격화
- 유럽, 아시아도 나중에 수입할 때 터미널, 플랜트 수요 증가 기대함

Q. 위협적인 경쟁업체는 없는지?

- 미국은 피팅 업체가 없음
- 중국에도 고가의 LNG나 해양 플랜트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음
- 경쟁 업체 진입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는 상황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SK이터닉스, 신안우이 해상풍력.. REC 계약완료

주요 내용

- SK D&D에서 분할된 회사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를 포함한 전 밸류체인 사업을 운영 중임
- SPC 설립, PF 유치, 효율적 설치 방식 등으로 민원 최소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며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 강화중임
-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REC계약을 완료하고 PF 협의 중이나, 남동발전의 예타 탈락으로 주주 구성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Q. 신재생 쪽은 정책 따라가는 것 같은데 국내에는 영향이 없는지?

- 국내는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임
-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 어려움
- 산자부에서 해상풍력을 대규모 사업 추진하려 진행중임
- 현재 국내 풍력 시장도 외국계 자본들이 진출해 준비 중에 있음
- 국내외 업체 간 협력이 진행 중이며 협력 가능성도 충분함

Q. 국내도 정권에 따라 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선회하지 않을지?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임
- 전력 부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명한 문제임
- SMR도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아직까진 기술적 허들이 높음
- 결국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Q. 미국 정책발 LNG 단가가 내려가면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 간접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적인 추측일 수 있으나 미국 시장이 주춤하면 기자재 업체들은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저희는 디벨로퍼로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대명에너지, 내년 BESS사업 본격화

주요 내용

- 120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중
- 안마 해상풍력(532MW)이 선도 사업이며 24년 착공 예정임
- 국내 최대 EPC 경험과 해상 풍력 선점, ESS 및 VPP 사업으로 신재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함

Q. 금리 내려가면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고민하게 됨
- 발전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금리 상승은 채권 금리도 높아져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고민들이 완화됨

Q. 풍력도 접속 대기 중인 곳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없는지?

- 개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만 따놓고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자격이 회수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실사업자들에게 다시 배분함

Q. BESS쪽 1차 사업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 공사 예정 규모는 660억 정도임
- 1년 이내에 완공되어야 하므로 내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프로젝트는 시범단지로서 크게 많은 물량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레퍼런스통해 이후 프로젝트 협상에 유리한 위치 기대함
- 향후 O&M까지 저희가 담당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OCI홀딩스, 4분기 출하량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주요 내용

- 3분기 매출 9088억원, 영업이익 205억원을 기록함
- 외환 차손과 폴리실리콘 판매 부진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4분기에는 말레이시아 사업의 가동률 회복과 폴리실리콘 판매 다각화 통한 실적 개선 기대함
- 미국 IRA법안의 혜택을 통한 태양광 시장 확장과 폴리 장기계약 확보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미국 태양광 시장

- 덤핑된 중국산 재고가 소진되면서 4분기에는 적정 이하 수준 전망함
- 그러면 정상 가동을 위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재고 매입이 필요한 부분
- 중국의 과잉 수출로 모듈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임
- CBD 결과에 따라 중국산 아닌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한 제품이 관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IRA 법령 강화로 미국내 생산 제품에 보조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미국 주거용 태양광 패널

-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수요가 크게 줄었음
- 주거용 태양광의 주요 수요는 주택 지붕에 설치하는 솔라 패널
- 고금리로 신규 주택 건설이 줄면서 시장의 수요가 70%가까이 감소
- 솔라패널 제조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임

Q. 미국 투자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부탁드립니다

- 미국 증설은 모듈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태양전지 셀 및 웨이퍼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강화되고 있음
- 작은 규모로 모듈 사업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협력사는 NDA 때문에 밝히기 어려움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섹터 애널리스트 REPORT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 / 24.12.03

해외 경쟁사를 통해 살펴보는 업황

- 글로벌 전력케이블 시장은 북미, 유럽 등에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초고압 (EHV) 전력케이블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미-중 갈등과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력케이블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IBK투자증권

김태현 연구원 / 24.11.28

힘을 내요 K-POWER

- 글로벌 전력망 투자 증가로 변압기와 전력기기의 수출이 급증 중이며, 미국, 유럽, 중동에서 주요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되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첨단산업 성장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망 투자와 전력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KB증권

정혜정 연구원 / 24.11.28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불러올 맞바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중임
- 2023년 글로벌 풍력 발전 신규 설치량은 116.6GW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해상풍력은 10.8GW로 2028년까지 연평균 23.3% 성장이 전망됨
- 풍력의 주요 변수는 금리 인하, 정부 지원 정책, 그리고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이며, 이들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장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키움증권

허민호 연구원 / 24.11.19

SMR, 정체가 뭐니?

- 글로벌 SMR 시장은 2050년 375GW 설치가 예상되며, AI 수요 증가와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잠재적 성장 기대됨
- SMR은 설계 단순화와 핵연료 효율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며, 기존 석탄발전 부지와 전력망을 활용한 설치로 비용을 절감 가능함
- 4세대 SMR은 고온 작동, 다목적 활용, 안전성 향상 등에서 주목받으며, 미국은 강력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현직자 미팅노트

현직자 소개

일자 : 12월 초순

안녕하세요. 저는 전력 관련 업종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기자재나 배전망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리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기술직이라서 설치부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력 산업에는 여러 직군이 있어요. 크게는 토목, 건설, 통신, 발전 등등 다양해요.

Q : 국내 전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드 쪽을 말하면 에너지원인 수력, 화력, 원자력, 가스 등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 전기가 변전소를 거쳐 송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송압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고, 전기 공학적으로 중요한 단계예요. 송압을 마친 전기는 송전선로, 흔히 보이는 송전탑을 통해 이동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서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이에요.

송전된 전기는 변전소를 거쳐 감압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220볼트 같은 전압으로 낮춰져요. 초기에는 초고압 상태로 송전되는데, 이걸 낮추는 작업을 변전소에서 담당해요. 이후에는 전봇대나 지중화된 전력선을 통해 전기가 가정으로 공급되는데 이때 전력량계 즉 계량기까지 오는 과정은 모두 한전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Q : LNG 발전이 늘면 전력망에도 변화가 있나요?

전력망의 변화는 없어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넘어오면 어떤 발전원에서 생성된 전기든 똑같은 전기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에는 차이가 없어요. 발전소 기자재나 설비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 품질이나 공급 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많아지면 변압기가 많이 쓰일 수는 있겠는데 국내는 미국과 상황이 좀 달라서요. 국내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애널리스트 세미나

SK증권 나민식연구원

일자 : 12월 초순

산업 동향 코멘트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 부흥과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송유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 투자를 강력히 반대하며, 401K 연금 계좌에서 ESG 관련 투자 금지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펀드는 태양광, 풍력 등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에는 성장세 둔화와 함께 마케팅 파워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또한 ESG 관련 사업부문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성장률 둔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 전력기기는 20년만의 사이클이 왔으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소로는 미국의 전력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인공지능 혁명으로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보편관세, IRA축소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둔화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 코멘트

- HD일렉트릭은 앨라배마 및 울산 공장 증설로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추가 매출 2,200억 원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 글로벌 전력기기 사이클 장기화로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일진 전기는 현재 수주잔고가 5년치 이상 쌓여있음. 향후 증설 공장 램프업 시 내년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와이즈클럽을 참고해주세요